

우리 이번에 어문규정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강이고요.

한글 맞춤법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모르고 그냥 풀면 보기 보고 풀면 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 전체를 제대로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외울 수 있는 거.

강조를 합니다.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만약 거기서 문제가 걸려 들어가면

그때 같이 보고 풀면 돼요, 다른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이시옷 같은 거 강조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말 법칙 이런 것들 띄어쓰기.

강조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해야죠.

한글 맞춤법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깥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예들만 달라질 뿐이죠.

기본적 규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좀 외울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준말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외울 수 있어요.

준비하면 잘 외울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A하/지, 게, 도록.

이런 식으로 어미가 변한다 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떨 때는 A지, A게, A도록으로 가고

어떨 때는 A치, A케, A토록으로 가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면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규칙 보고 풀어야 되나.

ㅏ가 빠지고 축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ㅎ, ㅈ 붙어서 치.

ㅎ, ㄱ 붙어서 케.

ㅎ, ㄷ 붙어서 토록.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ㅏ가 빠지고 ㅎ이 남아서 축약이 이루어지느냐.

A가 울림소리로 끝났다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가 전체가 빠져야 돼요.

줄 순 있는데.

그러니 예를 들어 이걸 줄이겠다고 하면

하다 앞에 나와 있는 ㄹ이 울림소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성실치로 주는 거고.

애는 하다 앞애가 ㄱ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애는 생각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내가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40항을 보고 읽어본 다음에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1번이 답인 겁니다.

아무튼이 아니라 아무튼으로 적는 것은

(가)의 간편케를 표기할 때 적용하는.

간편케를 간편하게가 줄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려면

애가 도대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ㅎ이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성실든, 생각든 이런 단어가 있기라고 해?

아뿔든.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지가 정답이 되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

다음 2번에 보게 되면 어떻든지가 아니라 어떻든지로 가는 이유는

(나)의 어근이 끝소리가 굳어진 것.

즉 (나)를 보게 되면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건

그냥 받침으로 적는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 할 때 ㅎ 받침들.

2번에 나와 있는 어떻다도 마찬가지.

어떻다 뒤에 든지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든지, 떡든지 이런 식으로 어간이

어떻, 어간이 가, 뒤에 어미가 든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간의 받침이 이미 ㅎ으로 고정된 단어라는 이야기죠.

3번에 보게 되면, 생각하다 못해를 왜 생각다로 줄이겠습니까?

ㄱ으로 끝났으니까 생각타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4번에 넉넉하지 않다 역시 넉넉, ㄱ으로 끝났죠?

그래서 넉넉지 않다.

거북지 않다, 이런 거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다음 5번에 하마터면이나 요컨대 같은 경우는

아예 굳어진 부사이기 때문에 (라)의 적용에 해당하죠.

결단코, 기필코.

이런 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예가 됩니다.

2번 문제 갑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A부터 E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에 보게 되면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겠다.

ㄴ은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서 줄 때는

준 대로 적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언과 조사가 일단 포함되어있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구별이 되어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보겠습니다.

먼저 A의 무얼.

뭐의 준말이에요?

무엇을의 준말이죠.

그러면 애는 조사가 결합되어있는 것의 준말이 만들어졌으니까

ㄴ에 해당하겠네요.

다음 이건은 이것+은.

역시 조사가 결합되면서 줄었습니다.

ㄴ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너희.

너희는 아무 상관 없죠?

애는 결합 구조가 너+희 접미사 결합으로 복수 만들어주는 거뿐이지

조사가 결합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ㄷ, C는 ㄱ이나 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D,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여기죠.

준말이 없습니다.

ㄲ은 ㄱ이죠.

그다음 마지막 그제의 경우에는

그거+이가 줄어서 이렇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어체거든요.

그래서 구어체 표현으로 이거, 저거, 그거.

이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어체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만들어진 거죠.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띄어쓰기 문제 걸러들어 가요.

맞춤법에서 가장 마지막 6장인가가 띄어쓰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 구성이 여기 다 걸려 들어갑니다.

먼저 1번에 보게 되면 너는 일밖에 모르니, 라고 할 때 일밖에.

일 체언, 밖에 조사죠?

그래서 조사는 앞 단어와 무조건 붙여 쓴다는 거 아시죠?

2번, 두 자루.

두는 관형사고 자루는 단위 의존 명사.

띄어 써야겠죠, 의존 명사니까.

다음 3번, 웃고만 띄고 있었다의 구성을 보니

본용언끼리 띄어 쓰는구나,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웃고 있었다에서, 볼게요.

웃고 있다.

이때 있다, 라고 하는 용언은 본용언입니까?

그러면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존재하다.

그러면 이게 본용언이라면 두 뜻 다 연결돼야 돼요?

웃고 있는 거냐고요.

본용언이 아니에요.

웃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웃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있다가 나온 것이므로 애는 보조용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본용언과 본용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사이에 뭔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애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넣을 수가 없어.

만약에 공부를 하고, 밖에서 놀고 얼마 후에 집에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 있었다는 지금 막 찢어놨잖아요.

찢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있었다를 찢어버리고
그 사이에 막 뭔가를 넣었어.

이런 식으로 갔다면 시간의 선후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때의 있다가 바로 본용언으로 쓰이는 건데

애는 먹고 있다, 웃고 있다.

앞에 있는 용언의 종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조용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3번이 틀린 이유는 띄어 쓴 것이

본용언과 본용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일단 띄어놓은 상태.

그런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데 붙일 수도 있긴 해요.

언제 붙일 수 있죠?

연결어미가 ㅏ나 ㅑ일 때.

애는 못 붙여요.

붙이면 이상한 거 알겠죠?

못 붙여요.

그래서 여기 연결어미가 ㅏ나 ㅑ일 때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애는 더군다나 보조사까지 껴 있어.

웃고만.

이렇게 조사가 껴 있잖아요?

앞에 연결어미가 ㅑ나 ㅓ일 때는 아예 만도 안 붙이겠지만

보조사가 껴 있다?

그러면 또 못 붙여요.

이런 규정들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정답은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르을 보게 되면 아는 척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는 관형어 구성이고 척은 의존 명사가 되겠죠.

뒤에 조사인 을과 결합되어있는 의존 명사.

알아서 그러므로 아는이라는 관형어와 띄어 써주는 게 맞겠죠.

다음 청군 띄고 대 띄고 백군 할 때

이때 두 말을 이어주는 대라든지 아니면 A 및 B할 때의 및이라든지

이런 거 앞뒤 띄어 쓰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죠.

4번은 위/윗 그리고 옷의 구분을 지금 해주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우선은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애는 기본적으로 뭐가 구분이 돼야 돼?

아래/아랫과 반대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 아래를 나눌 수 있다면

이쪽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애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수집자료에

윗사람, 윗집, 위쪽, 위층 나왔고 웃어른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어른만.

여기 보니까 어른이라는 단어만 위어른, 아래 어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웃어른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웃어른, 웃웃, 웃돈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기에 웃기라든지 웃비라든지 웃국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더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실상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웃어른, 웃웃, 웃돈 정도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웃어른, 웃웃.

웃웃은 겉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위, 아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윗도리, 아랫도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겉웃의 개념으로

웃웃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 위/윗을 구분할 때는

아래/아랫과 반의어일 때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윗을 쓰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이시옷 규정을 알고 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라는 단어가 어근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어근과 합성 명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일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위는 이미 고유어이기 때문에 고유어 조건은 다 들어가요.

뒤에 있는 게 된소리가 나와줘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 뭐 있어요?

사람, 그다음에 집, 쪽, 층.

어떤 것이 윗으로 바뀔 거냐.

사이시옷이 들어갈 거냐를 따져보면 발음이 중요하죠.

위사람, 위집으로 가죠.

이러면 이때 애는 사이시옷이 반영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는 위쪽.

선생님, 된소리 나네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원래 표기상 된소리였기 때문에 된소리가 발음되는 거지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사이시옷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애는 거센소리잖아요.

된소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층이라고 발음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이 사람, 집으로 될 때

사이시옷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즉 마지막 이걸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된소리나 거센소리에 위치하냐,

그렇다면 위를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윗을 쓴다.

이렇게 구분하는 알고리즘 표를 확인할 수 있었죠.

5번 문제는 두음법칙 적용합니다.

두음법칙인데 정답은 3번이 답이었던 거고

3번이 답인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죠?

공염불이야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써야 하는 근거를 기억해주세요.

뭐냐하면, 제10항 보기에 지금 보이죠?

제10항에 붙임2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말.

그러면 애가 빌 공 자인데 애가 접두사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뒤에 이런 게 붙어서 된말이나 아니면 합성어에서.

그런데 애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파생어가 된 건데

뒷말의 첫소리가 니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애는 발음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염불로 발음은 돼요.

그러나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가 접두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비어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염불, 쓸데없는, 염불.

아니면 공수포 같은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

또 새롭다 할 때의 신.

그러면 신지식, 신세계, 신여성.

신여성도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신여성이라고 하는 거 원래 두음법칙을 적용했을 때

계집 너 자를 쓸 때는 너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애는 첫소리 여일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여성으로 바꾸는 거고

애도 원래는 상념할 때의 념이잖아요.

이 념 자가 뒤로 가게 되면 상념해졌다 할 때는

뒤에 념을 원래 써야 되는 단어인데 일음절로 갔을 때는 염불이 맞아요.

그런데 애는 일음절이 아니라 이음절인데도 왜 두음법칙을 지키느냐.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가 붙어있을 때는 두 번째 음절 이후로 나와도
두음법칙을 지켜주겠다, 라는 게 여기 붙임2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애가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 뒤에는 녀.

예를 들면 남녀 할 때는 남여가 아니라 남녀잖아요, 그렇지요?

남녀가 모여, 이렇게 쓰잖아요.

애도 이음절인데 왜 녀로 안 쓰냐 이거잖아요.

이런 원리에요.

한자어가 접두사처럼 쓰인 단어.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발음이 ㄴ이 난다 할지라도

쓸 때는 두음법칙을 지켜준다는 그런 원리에 의합니다.

다음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의 1번에 ㄱ의 내용은 뒤쪽에 이것만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일단 맞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야.

ㅂ불규칙용언 이야기할 때 용언의 어간이 ㅂ으로 끝난 단어 중에

모음 어미와 결합되었을 때 이 ㅂ이 ㄱ나 ㄷ로 변해서

어미 쪽에 붙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언제 ㄱ로 변하고 언제 ㄷ로 변하느냐,

외우면 되거든요.

ㄱ로 변하는 건 두 단어밖에 없어요.

곱다와 돕다밖에 없어요.

외우세요.

그 외.

불규칙이라면 그 외.

따라서 곱다 같은 경우에는 곱+연결어미, 모음어미 결합되었을 때는

결과물이 고오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ㄱ로 변하고 ㄷ가 붙는다면

2번이 틀린 이유는 뭔지 알겠습니까?

가깝다예요.

그러면 가깝다는 가깝, ㅂ이 ㅌ로 변해야 돼요.

가까우로 변해서는 ㄱ랑 붙어서 위가 나오는 거죠.

가까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ㄷ에 대한 설명도 이따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 ㄹ 보시면,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뺏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ㅂ이 뺏나.

이런 거 뭐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는 어떤 문제와 연결될 거냐면,

중세국어 용법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접때, 이런 표현 있죠.

애가 만들어진 건 중세 시기에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두자음군의 있었던 시절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만들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어두자음군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는 된소리로 처리되고

그 앞에 있던 ㅂ은 받침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ㅂ이 뺏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ㅂ 소리가 뺏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ㅂ 계열 어두자음군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놈들이고요.

그다음, ㅎ 소리가 뺏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코기,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중세 시기에는

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ㅎ중성체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기랑 결합되어있는 건 아니고

ㅎ중성체언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들이 결합되었을 때

그래서 애는 살로 만들어졌다, 살홀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한 이 ㅎ종성체언에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ㅎ, ㄱ이 축약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ㅎ 소리가 덧나 거센소리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문으로 지금 머리카락이 나온 거죠?

역시 마찬가지.

머리가 ㅎ종성체언인데 가락이랑 더해져서 머리카락.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다음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냐하면,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대원칙.

단, 어법에 맞게 적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지

아니면 어법에 맞게 적었는지를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될 텐데

1번 가보도록 하죠.

먹어, 먹은.

소리 나는 대로 가게 되면 ㄱ 받침이 다 올라가야 될 텐데

끊어 적어요?

이거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따라서 ㄴ에 해당한다.

다음 2번, 굳이, 같이.

이거는 구개음화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ㄷ 받침이나 ㅌ 받침이 ㅣ모음 계열과 만나서

지, 치로 변할 텐데 이거 표기에는 반영 안 하네요.

그러면 어법을 유지해주는.

즉 역시 ㄴ입니다.

3번 가보죠.

푸다에 푸어서.

그런데 푸어서라고 안 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펴서.

ㄷ가 탈락합니다.

또 푸었다가, 푸었다가 아니라 폼다가 되면서 ㄷ가 탈락합니다.

그러면 이걸 애가 원래 어간이 폼다, 푸다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ㄱ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4번, 미덥다 또는 우습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 또는 웃을만한 상황이다.

이럴 때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민다에 ㄷ 받침이 넘어가 버리거나

웃다에 ㅅ받침이 넘어가 버리거나.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ㄴ이 아닌 ㄱ 쪽이고요.

또 노인과 원로와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

그러면 같은 로 자인데 일음절에 왔을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어서 노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의 경우에는 어법을 지킨 것이고

원로의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순 없습니다.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 이야기고 47항 이야기 띄어쓰기 조항 중에서 보조용언 부분이야.

이거를 외우세요.

47항을 외우세요.

자꾸 보세요, 이 부분을.

기본적인 예들입니다.

보조용언 띄어쓰기.

선생님, 용언에서 보조용언 할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연결어미가 아/어, 하다 계열의 여일 경우 가능하죠?

그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상태가 A, 그 뒤에 나오는 띄어서

~하는 척하다, 체하다, 만하다, 법하다, 듯싶다.

이런 보조용언일 경우.

즉 원래는 이렇게 의존명사 재료들에

이런 접사들이 결합되어 만든 보조용언일 경우에

이 앞에 붙일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일 수 없는 경우.

다만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앞말의 조사와 결합되어있다든지 합성동사.

앞에가 합성동사.

본용언 부분이 합성동사라든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1번, 내 힘으로 막아내다.

막다 본용언, 내다 보조용언.

연결어미가 아예요.

그러면 애는 붙일 수 있는 게 맞아요.

띄어 써도 문제없어요.

다음 2번 갑니다.

덤벼들어 보아라.

앞에 덤벼들다가 덤비다와 들다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뒤에 보아라를 못 붙인다는 거죠.

연결어미가 어임에도 불구하고.

2번은 이대로가 맞습니다.

1번은 띄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3번 갑니다.

될 법하다, 어떻다고요?

될 법하다예요.

띄어냈죠? 괜찮아요.

붙여도 괜찮아요.

일단 3번은 붙여도 괜찮고 띄어도 괜찮고.

4번 가겠습니다.

올 듯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올과 듯하다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야.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올 듯도 하다로 되어있죠?

여러분, 여기 조사가 껴 있으면 더 이상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애는 올 듯도 하다로 써야 마땅한 거죠.

왜? 이렇게 나오면 애는 하나의 단어지만 애는 두 개의 단어가 됩니다.

관형어 구성은 똑같지만

듯은 의존명사, 도는 조사, 하다는 동사로 처리되는 거죠.

이때의 하다랑 이때의 하다는 달라요.

우리 앞에 거랑 붙이는 하다는

접사, 띄어 쓰게 되는 건 단독으로 쓰이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띄거나 붙이거나 가능.

본용언, 보조용언의 틀로 이렇게 관형어 구성,

의존명사 조사, 동사 가능해요.

그러나 애는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에 읽어 띄고 보았다, 라고 한다면 띄는 것이 원칙.

그러나 연결어미가 어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가능.

그러나 5번 현재처럼 읽어는과 같이 조사가 결합되어있을 때는

5번처럼 띄어쓰기만 해야 되겠죠.

읽어는 띄고 보았다.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에 된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5항인데 한 단어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형태소 개념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하나의 형태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된소리 발음이 나온다.

된소리로 적어주자.

아시겠죠?

특별한 이유 없이 된소리 발음이 나온다?

된소리로 적어주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ㄱ이나 ㄴ 받침 뒤에는

겹쳐나는 소리거나 비슷한 소리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석이라는 단어.

이거를 형태소를 나눌 수가 없죠?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음은 어떻게 된다?

법씩으로 된소리가 나요.

법씩으로 된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애는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ㄱ이나 ㄴ 받침 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예를 먼저 잡아줄게요.

지금 여기 예를 들고 있는 으뜸, 1번의 예입니다.

다음 2번에 거꾸로.

다음 3번에 살짝,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으뜸, 거꾸로, 살짝.

지금 된소리 발음들이 나온단 말이야.

으뜸, 거꾸로, 살짝 할 때 된소리 발음들이 나와요.

형태소 이거를 쪼갤 수가 없어요.

하나의 다 형태소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일 때 의미 없이 된소리 발음 나오는 건

된소리로 적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요?

기이나 ㅂ 받침 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5번 답지에 있는 낙지,
그리고 덩석 같은 거 하나 적어볼게요, 이런 거.

덩석 잡았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발음은 덩석 된소리가 나오고 또 발음은 낙찌.

앞에랑 똑같잖아요.

형태소 못 나누는 것처럼 애도 형태소 못 쪼개거든요.

다 하나짜리거든요.

그런데 받침이 뭐일 때?

기이나 ㅂ 받침 뒤일 때에는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이나 ㅂ 받침 뒤는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가 되는 게 어떤 거였다?

이런 부분이죠.

똑딱똑딱, 씹쓸.

이런 거 보니까 선생님, 여기 기 받침 뒤 맞는데요?

ㅂ 받침 뒤 맞는데요?

똑하고 딱 끊어요?

씹, 쓸 끊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뭘니까?

비슷한 소리나 같은 소리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는

또 애네들은 된소리로 발음이 났을 때

발음대로 적어주겠다, 라고 하는 걸 조항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건 의성어, 의태어 계열이겠죠?

4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씩씩, 같은 소리야.

씩씩도 한번 적어볼게요.

ㄱ 받침 뒤에요.

그러나 애를 된소리 발음이 났을 때 된소리로 적을 수 없는
애네들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 건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소리, 같은 소리.

그런데 애는 서로 간의 비슷한 소리나 같은 소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적는 겁니다.

10번 가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표에 맞는 것은?

모르면 막 틀려요.

1번 갑니다.

제가 할게요.

발음 어떻게 나죠?

할게요로 나오죠.

그거 내가 할 걸은 발음이 내가 할걸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쓸 때는 어떻게? 예사소리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걸.

예사소리로 써야 돼요.

르걸, 르게요.

이런 식으로 어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종결어미 쪽에 된소리 발음이 나오는데

그냥 된소리 안 쓰고 예사소리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의문형 어미의 경우에는 된소리 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할까?

이러면 까로 써야지.

할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때는 된소리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문형이 아닐 때는 발음이 된소리 발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사소리로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할게요가 맞는 거고

다음, 2번은 하던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문백 봐야죠.

둘 다 쓰일 수 있는 건데 애는 선택, 애는 과거 회상.

무엇을 하던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이거 너무 심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써놨어.

진짜 어떡하냐.

사전에 어떠하다는 준말로는 어떻게, 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에서 다 대신에 어떻게라고 하는 어미가 붙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 해.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준말입니다.

어떻게 해가 줄어들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떡해, 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거 발음은 알잖아.

어떻게로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ㅇ하고 ㄱ이 줄어들어서 ㅋ 발음이 나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어떤 발음이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ㅎ이 받침으로 나오면 대표음이 뭐로 가죠?

ㄷ으로 갑니다.

그러면 ㄷ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ㄷ하고 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쓰면 발음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써야 어떠캐라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그 발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의 준말은 애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줘야 되겠죠.

다음 4번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다와 바래다는 단어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wish의 개념으로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애는 색깔이 누래지다의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결어미로 ~하길 바라다는 표현으로 +아.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니까 애는 그냥 애랑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음 탈락을 통해서 뭐하길 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너가 뭐하길 바라.

넉넉치야, 지야?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거로 해결할 수 있죠.

넉넉, ㄱ 받침이니까 넉넉하지의 준말은

넉넉지로 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리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1번 갑니다.

5항하고 27항이 잡혀 있고요.

된소리 표기 발음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1번에 (가)를 보게 되면

즉 한 단어 안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오는 된소리는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겠다.

그러면 여기 (가)를 보니까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 어깨는 모음 뒤, ㄱ 뒤.

그다음에 잔뜩, 살짝, 듬뿍.

ㄴ, ㄹ, ㅁ, ㅇ.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납작이 아니라 왜 납작으로 적느냐,

ㄱ이나 ㅂ 받침 뒤.

그것이 (나)에서의 법칙을 표기할 때와 같은 원리죠?

3번에 째찰하다가 아니라 째찰하다로 ㅂ 받침 뒤에 찰을 쓰는 이유.

역시 비슷한 소리 같은 소리 적용.

다음 물뽕이 아니라 왜 물병으로 적어주느냐, 발음은 물뽕이 되는데.

이때는 다의 칼날.

27항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은 원형을 밝혀 적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된소리 이야기할 때 하나의 단어.

즉 하나의 형태소일 때라는 전제를 깔았던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물+병.

이거는 두 개의 형태소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아까 원리.

ㄱ이나 ㅂ 받침 뒤.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각뚜기를

왜 각뚜기로 적어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ㄱ 받침 뒤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안 적는 거다, 라고 하는

(나)의 원리를 적용하셔야죠?

(다)와는 상관이 없어요.

12번 갑니다.

12번은 역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기에 부사화 접미사로

이를 쓸 거냐 히를 쓸 거냐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준이 다섯 개 있죠?

이로 적는 거 3개, 히로 적는 거 2개.

순서대로 A, B, C.

히로 적는 거 **D, E**.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답지에 나와 있는 거로 뭘 적용해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구분해보도록 해요.

잠시 멈춰놓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다면 볼까요?

먼저 이로 적는 것.

먼저 **1번**, 고이나 고히나.

애는 뒤에 해당하는 거죠?

곱다에서 출발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용언의 어간이 **ㅂ** 받침을 쓰던 놈들인데

이때는 히가 아닌 이랑 묶고 이때의 **ㅂ**은 묵음 처리됩니다.

그래서 **1번**은 **B**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이가 맞겠죠.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은 겹겹이.

이때의 겹은 한 겹, 두 겹할 때의 그 겹이죠?

동음 단어.

같은 단어인데 첩, 중첩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첩어라고 합니다.

애는 **A**, 즉 첩어인 명사 뒤에 이를 쓰게 됩니다.

다음 **3번**은요.

조기 열흘은 걸려.

족히 열흘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쓰겠죠?

애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E에 해당합니다.

즉 족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족하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 쪽인 족 뒤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소리 날 때는 족히,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4번의 경우에는 뒤에 해당하느냐, **C**입니다.

즉 하다 구성인데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하다 형태일 때는 애를 부사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히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하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쓰면 돼?

A히, 라고 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단, 예외.

A가 ㅅ 받침 되면 애는 A이로 가는 예외가 걸려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긋하는 경우에.

느긋하다 있거든요.

애는 어떻게 된다? 느긋.

원래는 히겠지만 예외조항.

ㅅ 받침 뒤이기 때문에 느긋이로 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히가 아닌 이.

5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별하다, 각별한 사이다 할 때 각별하다 있거든요.

애는 ㅅ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는 어떻게 쓰면 된다?

각별히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13번은 준말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순서대로 보게 되면 파이다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줄이는 거니까 꽤다가 되겠군요.

다음, 파인을 줄이게 되면, 깊게 파인 구덩이.

그러면 애는 이거를 역시나 이까지를 줄여야 되니까

꽤가 나오고 ㄴ 붙이면 되는 거죠, 팬.

다음, 어떻게 줄였더니 꽤다가 나왔대요.

그러면 꽤었다죠?

꽤었다가 줄어야 그래서 여기에는 었이 들어가면서 꽤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이놈, 이놈, 이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14번입니다.

띄어쓰기 또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1번에 큰 형은.

이거 띄어 쓸 거냐, 붙일 거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큰 형이 만약에 집 안에 있는 항렬을 이야기하는 거다.

형이 둘이 있는데 작은형, 큰형.

그러면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문장을 봐.

ㄱ을 보니까 내게는 키가 큰 형이 하나 있다예요.

그러면 이때의 큰은 형과 띄어야 돼.

왜? 키가 큰이 관형어 구성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 절이잖아.

그러면 띄어 써야 되겠죠?

다음 2번에 자루와 한은 띄어 쓰는 게 맞겠네요?

의존명사 자루 앞에 한, 수관형 땡니다.

다음, 3번에 보면 샷을 뿐이다할 때는 의존명사뿐이기 때문에

앞 단어와 띄어 써주는 것이고

ㄷ의 경우에는 너뿐이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고요.

다음 4번, 이해해 띄고 주다.

그러면 이것도 봐 봐.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죠.

왜? 애는 무슨 단어?

이해하다.

연결어미 뭐야? 여가 나왔죠.

이해하여가 줄어야 이 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주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주다는 본용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성을 가지고 있는 용언.

그래서 애는 보조용언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가 연결어미나 아, 어, 여일 때는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해 주다는 붙일 수가 있어요.

다음 5번에 ㄴ과 ㄷ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서술격 조사 이다인데 어떻게 앞에 거랑 띄냐.

그래서 완전 안 되는 거고요.

15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센스를 발휘해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ㄴ을 먼저 찾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생어를 찾으려면
접두사, 접미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을 테니까 합성어.

즉 확실한 애가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번, 4번이 ㄴ에 합당하다는 걸 알 거예요.

왜? 뒤+뜰, 쌀+알이 각각 명사들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ㄱ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ㄱ은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4번이 길이 때문에 망했어.

왜냐하면 길이가 어근의 형태를 지키지 않으려면 기리,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런데 애는 길다, 라고 하는 어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번은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글 맞춤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파트에서.

그래서 미리 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다에 엄, 집+웅.

물론 이렇게 엄이나 웅이라고 하는 접미사 현재 있느냐, 없어요.

현존하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던 접미사들이 결합되었을 때는

이 단어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만들어진 겁니다.

즉 애네들이 접미사였기 때문에 파생어는 맞아요.

맞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당히 수능 문제였다는 걸 좀 주목해보시고

이런 문제를 내가 과연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맞춤법 규정을 좀 제대로 보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역시 준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쉽다.

1번이 답이네요.

왜? 씨어라.

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 이렇게 줄어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

바람을 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정답은 1번.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이 아까 전에 앞서 나온 답지에서 이때 설명을 드리려고 말았던 건데

오를 써야 돼요 아니면 요를 써야 돼요.

이런 거 질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종결어미 오가 있죠?

애는 지금 하오체.

나는 집에 가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집에 가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오체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쓴다고 했죠.

일명 선비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나 이제 집에 가오.

이것 좀 먹으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소,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결어미.

요 구성.

그래서 이것은 붓이요, 요예요.

그리고 쉼표예요.

연결어미니까 다음 문장이랑 연결돼야 됩니다.

저것은 종이요.

이렇게 썼다 치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는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

세 번째, 보조사가 있죠.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떤 구성이냐면, 뒤에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거 어떤 구성이냐면, 종이 이오예요.

왜냐하면 종결어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들어서 요가 나온 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조사 요.

이 보조사 요는 해요체를 만들어주는 구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일상적으로 늘 많이 쓰는 거.

떡어요, 잡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집에 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여기서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가오, 라고 할 때는 어간 가에 종결어미 오.

이렇게 결합된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어간 가에 종결어미는 해체의 종결어미인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씹니까?

너 집에 가 하는 반말 구성이에요.

집에 가, 라고 할 때의 야, 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나오고

거기에 보조사 요가 더 결합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나는 집에 가오, 나 이제 집에 가요.

이건 서로 다른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요 같은 거 붙는 거는

따로 문체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인데 일단 ㄱ부터 잡니다.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로 발음이 나왔어요.

ㄱ이군요.

발음은 이렇게 나왔으나 애는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를 헛갈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ㅣ 모음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오가 오게 되면

순행동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단 ㅣ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발음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했을 때 애냐 애냐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명한 책이 아니다.

이게 어디까지 어간이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올 차례죠?

어미가 와야 될 차례야.

유명한 책이 아니요라고 했다면 어간 아니 뒤에 어미가 나올 차례예요.

선생님이 이걸 어미라고 이야기했고 애는 조사라고 했어요.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아니오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결어미예요.

지금 마침표야.

이렇게 걸려들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애는 요가 보조사이기 때문에

애를 생략해도 단어가 말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애 없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헛갈리나 보죠,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떡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밥을 먹 뒤에 뭐 씹니까?

하오체인데 떡(으)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개모음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애는 먹어, 그다음요? 요가 나오겠죠.

그런데 애는요?

만약에 뺏을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어.

말 되거든요.

그런데 애는 이게 요 자리가 왔다?

그러면 떡,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돼버려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요는 빼면 해체가 나오는 거고

요가 들어가면 해요체가 되는 거야, 서로 간에.

그래서 요를 뺏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보세요.

여기 요를 뺏게요.

유명한 책이 아니, 말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요 자리가 아니라 뭐다? 오 자리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 자리를 잘 못 찾느냐,

현실에서 잘 안 쓰는 표현 아녓니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 실제로.

다음 ㄴ 가볼게요.

ㄴ에 보게 되면 영화 구경 가지요.

발음이 애야. 뭐 쓰겠습니까?

영화 구경 가지.

해체 쓸 수 있죠?

그러면 애는 분명 쓸 때 어떻게 썼겠죠?

요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다의 어미가 이미 지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불어 보조사.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어미가 있는데.

어말어미가 가지하는 해체 어말어미가 있는데

오라고 하는 어말어미를 또 못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ㄷ을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연결어미죠?

그래서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연결어미 부분이니까 애는 B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짚지은 건 1번이 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접미사가 된말 중 일부하고

ㄱ, ㄴ, ㄷ 있는데

예들을 잘 맞춰줬는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접미사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야 ㅈ 넘어가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는 어간의 원형이 이진데

이것을 유지한 게 아니라는 게 되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 2번, 걷다에서 파생된.

걸음을 걷다에서 파생된 걸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ㄷ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걷다, 묻다.

이런 단어들은 어간이 ㄷ 받침일 때

모음 어미와 결합해서 ㄹ로 바뀌는 불규칙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애는 이 어간의 원형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걸음이라고 쓴 건 아니니까.

밝히어 적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애가 ㄴ에 해당합니까?

ㄴ을 보면,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걷다가 걸음이 되면 뜻이 달라지나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3번 가보도록 하죠.

막다에서 이게 만들어졌대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애가 필요했겠죠.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건 현존하는 접미사 아니에요.

지금 쓰이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ㄱ이나 ㄴ, ㄷ에 이나 음 이외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많이 넣어주는 건

이나 음이 지금 쓰는 명사화 접미사,

이 같은 경우는 부사화를 접미사까지 함께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어버렸죠.

그러면 3번은 막다에서 파생된 마개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ㄴ이 아닌 ㄷ에 맞죠.

왜냐하면 ㄷ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나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건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어요.

예문으로 나머지, 올가미.

나머지 같은 경우 어떻게 더해졌을까.

남다, 남+어지, 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겁니다.

이런 예는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3번은 ㄴ이 아닌 ㄷ.

4번에 남다에서 더하기 너머가 됐대요.

부사가 된 거죠?

저기 넘어갔다.

너머야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번, 역시나 어라고 하는 접미사는 현재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애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ㄷ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남다는 동사였던 건데 넘어에, 라고 할 때

명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었고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가보겠습니다.

놀다에 파생된 노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결합됐어요?

음이 결합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었겠느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ㄴ에 해당하죠.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선생님, 이 뜻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놀다, 라고 하는 건 플레이의 뜻이지만
놀음은 겹블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진 거로 봅니다.
그래서 5번도 기억을 좀 하시고.

19번 가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

A는 소리 나는 대로, B는 어법에 맞는 것.

합성어, 파생어 구분.

그리고 A만 충족, B만 충족, A, B 모두 충족.

복잡하네요.

1번 가볼까요?

ㄱ, 파생어이면서가 일단 전체가 붙죠?

파생어이면서, 빨리 품시다.

1번에 파생어 아닌 거 있습니까?

없죠?

둘 다 파생어예요.

왜냐하면 입+알이 접미사.

얼+음 접미사.

음 접미사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어 맞아요.

그러면 ㄱ이 정답이 되나요?

A,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고 했는데 이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만

얼음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죠.

얼+음,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얼음 때문에 틀렸네요.

즉 형태를 유지한.

얼음은 파생어이면서 B.

즉 ㄷ에 해당하니까.

2번 가보겠습니다.

ㄴ 위치는 합성어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마소나 낮잠.

말하고 소, 낮하고 잠.

전부 다 어근끼리의 결합이니까 합성어, 일단 패스.

그러면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소의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맞죠.

말소라고 안 적었으니까.

그런데 낮잠의 경우에는 형태를 유지했잖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ㄷ 받침 쓰고 낮잠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낮잠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죠.

ㄷ은 파생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웃음, 음 접미사. 바가지, 아지 접미사.

지금 쓰이진 않는 접미사지만.

즉 파생어인 건 맞아요.

그런데 B니까 형태를 유지해줘야 되겠죠?

웃음의 경우에는 형태를 유지했지만, 바가지의 경우에는

ㄱ이 넘어가 버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틀렸죠?

4번, 옷하고 소매, 밥하고 알. 합성어들입니다.

형태가 유지가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다?

ㄹ에 적합하다는 거죠.

어법에 맞추어졌고 합성어이고.

5번은 왜 틀립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서 어법에 맞도록

모두 충족해준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니의 경우에는 사랑+이였고

애의 소리는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사랑니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20번 문제, 앞서 봤던 것처럼 그 원형을 유지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고

접미사가 지금 쓰이는 접미사냐

아닌 접미사나를 구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다듬다 어간에,

다듬이죠?

더하기 명사와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고

형태를 유지해서 적어야 되는 거에 적합하죠.

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나왔죠?

왜 막애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쓰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ㄴ의 조항.

즉 이나 음이 아닌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됐으니

동사가 명사가 됐잖아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다.

다음 3번, 삼발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 개의 발을 가진 물건인데

애 형태를 유지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씁니다.

발이라고 하고 ㄴ을 넘기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ㄷ처럼 명사 뒤에, 이게 명사잖아요.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지키겠다.

다음 4번, 귀머거리인데 귀+떡+어리가 머거리로 변한 거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애는 용언 어간 뒤가 되는데 ㄴ 부분은

어쨌든 20항이므로 명사 뒤에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애는 명사 뒤가 아니야.

동사 어간 뒤에 나오는 접미사예요.

따라서 4번은 ㄴ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애는 ㄴ 규정에 해당합니다.

용언의 어간 떡에다 이나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4번은 ㄴ이예요.

5번에 덮개의 경우에는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즉 덮개는 어떤 접미사가 있어요?

날개, 쓰개, 지우개에 덧붙는 개가 붙은 거죠?

그러면 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맞습니다.

21번 아까 오요에 대한 문제 또 나오죠?

1번에 ㄱ입니다.

이것은 들판이요예요.

이것은 들판이요, 연결어미니까.

그다음에 저것은 하늘이요.

종결어미예요.

애를 오가 아닌 요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왜? 요를 쓰면 생략도 가능해야 되는데

저것은 하늘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오가 올 자리고, 대신 발음의 경우에는

| 받모음 첨가 때문에 이요로 발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죠.

고향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서울요, 라고 이야기한 건 선배한테 대답한 겁니다.

보니까 서울이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요, 라고 적어준 거냐.

이게 이렇게 줄어든 거냐, 절대 아니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애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일단 붙고요.

그다음에 이다나 아니다 뒤에는 예요, 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 자리예요.

이걸 한번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

이걸 줄일 수는 있어요, 예요.

그런데 애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못 줄이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구예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받침이 없어요?

이 뒤에, 이걸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오냐 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요라는 하나의 종결어미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대구라고 하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 붙고

에요, 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붙어 있어요.

이건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애는 줄이면 대구이예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구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이예요가 서울요로 줄어든 거냐.

그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보조사.

보조사의 기본적인 기능.

꼭 체언 뒤에 붙어야 됩니까?

그건 격조사.

보조사는 자기 멋대로야.

결국 뭐냐면, 서울요, 라고 하는 건 이걸 그냥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서울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곧바로 보조사가 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의 경우 요를 이요로 바꿀 순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냥 체언, 서울+보조사 요의 구성인 거고

여기다 이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넣을 거면 어떻게 하나, 서울이예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고향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 부산이요.

그렇다면 애는 하오체 쓴 거죠.

그다음 4번, 무얼 좋아하시오.

소설이요, 영화요.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ㄹ의 경우에 영화요, 라고 할 때는 영화요.

지금 보면 서술격 조사인데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러면 종결어미로 뭐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오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애는 하오체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지막에 종결해야 되는 질문이죠.

영화요?

그런데 우리는 받침이 없으면 이를 줄여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화요.

아까도 여기 써놨죠, 선생님이.

저것은 종어요.

이건데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줄여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

이거는 하오체 구성이에요, 해오체 구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종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를까.

종이이에요 해서 종이에요, 라고 쓰면 모를까

종이요, 라고 썼을 경우에는 이때 줄어드는 요는 해오체 구성이 아니라

하오체 구성이라는 점이에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쪽 그러면 선생님, 진짜 헷갈리는데요?

문제 내면 겁먹고 안 풀 거예요?

외워주면 된다니까요, 이 부분도.

따라서 지금 4번의 설명에 ㄹ에 밑줄 친

요의 경우에는 모음에 끝나는 체언에 이요가 줄어드는 형태이다.

다음에 ㅁ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ㄹ하고 ㅁ의 차이가 뭘니까?

르은 질문 자체가 무엇을 좋아하시오.

하오체였어요.

그런데 ㄹ은 무얼 좋아하세요? 해오체입니다.

그러면 소설요? 영화요?

이거 줄어든 거라고요?

아니라니까.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라는

체인 뒤에 보조사 요만 탁탁탁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조사로 볼 수 있다.

마지막 22번입니다.

지금 맞춤법 쪽이기 때문에 사잇소리가 아니에요.

사잇소리 문제는 표준 발음법 문제인 거지

맞춤법 문제는 사이시옷을 쓸 거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이시옷을 쓰는 거는 1차 합성 명사죠.

다음 두 번째, 이거 합성 명사는 A+B의 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애는 A 또는 B가 고유어가

반드시 끼워야 된다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나 B나 한자어가 있을 순 있겠지만

고유어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규칙이었습시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음상 둘 중 하나죠?

된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예요.

발음상 된소리가 추가되는 거예요, 덧나는 겁니다.

원래 된소리 표기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지만

된소리가 아니었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면

그때는 된소리가 덧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사이시옷 표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ㄱ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6월 평가원이었는데 1, 2번은 결국 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자 지식의 문제인데요.

이거 어디에 적용됩니까?

두 번째 거에 해결되죠?

일단 애네들 모두 다 합성 명사는 맞아요.

도매하고 가격, 도매하고 값.

전세+방, 아래+방 합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애는 사이시옷이 있고 애는 사이시옷이 없는 이유는

결국 뭐의 문제?

도매나 가격이 한자어.

전세나 방 둘 다 한자어.

즉 **A**나 **B** 쪽 어디에도 고유어가 없다는 점에서 사이시옷 못 쓰는 거고

발음은 된소리 발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도매가격, 전세빵이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애의 경우에는 값이 고유어, 그리고 아래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고유어가 조합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것이 도매값.

발음 된소리 나오네?

사이시옷 봐서.

아랫빵, 된소리 발음 나오네?

사이시옷 봐서, 6월 평가원이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도매가 가격이 한자어다 정보 줍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단어들은 규정에도 나와 있는 예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규정을 유심히 보고 이 규칙성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이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ㄷ 가보겠습니다.

버섯국, 조갯국.

사이시옷 적용 둘 다 됐네요.

난리 납니다.

보세요.

다르죠?

애는 버섯+국.

원래 A에 ㅅ 받침이 있는 놈이지 덧들어온 게 아니잖아.

버섯+국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애는 사이시옷이 아니야? 아니에요.

시옷을 한 번 더 쓸 수는 없죠.

사이시옷은 여기 지금 적지도 않았지만, 앞에 A가 모음으로 끝났어야

사이시옷을 넣어둔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적을 필요도 없어.

시옷 두 번 쓸까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런데 애는 조개+국인데 조개꼭 합성명사죠?

둘 다 고유어죠.

그다음에 애는 된소리 발음이 조개꼭하고 발음이 나오죠.

넣어준단 말이야.

이 조항입니다.

다음 4번, 애는 왜 안 쓰고 애는 왜 썼느냐,

뭐의 문제일까요?

둘 다 합성명사 맞습니까?

인사+말, 존대+말.

고유어 일단 말만 해도 고유어이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하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애는 발음이 된소리 안 되는 건

쌍ㄱ이 없으니까 당연할뿐더러 ㄴ 소리가 덧나질 않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발음을 인사말이라고 발음을 하면

그건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 발음은 인사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애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존댓말이에요.

즉 발음상에 표기에는 원래 존대+말인데

발음상에 ㄴ이 덧난단 말이야.

이럴 때 시옷으로 박아줍니다, 표기를.

이 원칙.

마지막 5번,

여기 왜 사이시옷 안 씁니까?

일단 나무하고 꺾질 합성명사 맞죠?

나무+가지 합성명사 맞습니다.

그리고 고유어들 둘 다 있네요.

모두 고유어죠?

그런데 역시 애는 사이시옷 안 써놓은 이유가 이게 안 돼서.

선생님, 된소리 되는데요?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된소리가 덧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된소리 표기가 아니었던 것이

발음상 된소리가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원래 된소리 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음 나무꺾질로 발음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때는 사이시옷을 적어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애처럼 원래는 그냥 ㄴ이었는데

발음할 때 나무까지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때 사이시옷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한글 맞춤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준발음법 그리고 로마자, 외래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